

“저출산 문제의 본질은 반성경적 가치관의 확산”

한국복음주의의료인협회, 광주광역시에서 정기 세미나 개최

한국복음주의의료인협회(이하 한복의협)가 주최했고 예정함동 전남노회교육부가 주관한 2024 한복의협 정기 세미나가 최근 광주동명교회(담임 이상복 목사) 1층 비전홀에서 '반성경적 가치관과 저출산의 위기'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세미나는 신명섭 원장(한복의협 회장, 성누가회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맹연환 목사(사회대책위원회)가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1970년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울 때 인구 억제정책을 펼치면서 '덜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고 잘 키우자' 등의 정책을 펼쳤는데 나중에 정부에서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못지않다'고 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탄식한 바가 있다"며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1970년 100만 명 출산 시대가 2012년 반토막이 났다. 10년이 지난 2022년에 또 반토막이 났다. 이대로 간다면 2070년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3천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올해 6~7월 출산율이 7.9%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8월에 결혼하는

것이 작년 대비 20% 늘었다고 한다. 저는 이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빛이 보인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할 일이 많지만, 그 가운데 최우선으로 긴급한 일은 저출산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모종훈 목사(전남노회장)가 대표기도를 드렸으며 현숙경 교수(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반성경적 가치관과 저출산의 위기'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현 교수는 "저출산 문제의 본질은 반성경적, 반가족적 가치관의 확산에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출산율이 매년 신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으며 이에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출산율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극복한 경우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저출산의 원인을 보면 20세기 중반 이후 서구에서 유입된 진화론과 무신론적 가치관이 우생학, 산아제한, 문화적 막시즘,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등의 형태로 펼쳐지며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가치관들은 반성경적인 가치관이다. 반성경적인 가치관이 들어오

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보면 무신론 교육과정이다. 교과서에서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광장히 어색하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가족계획, 재생산권, 기후위기 등 다양한 인구조절 프레임이 받아들여졌고, 이는 저출산 억제정책으로 이어졌다. 2000년대 출산율 저하의 심각성을 깨닫고 출산 장려 정책을 도입했지만,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반성경적 정책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실질적인 출산율 회복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1970년대부터 출산 억제 정책을 시행하여 인구 증가를 제한했고,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1994년 유엔 인구 대회에서 세계적으로 인구 억제 정책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개인의 생식권이 강조되면서, 국제 사회는 정책 전환을 시작했다. 한국은 1996년까지 출산 억제 정책을 지속했으나, 이후 출산율 하락 문제에 직면했다"며 "2005년부터 한국은 출산 장려 정책을 도입했지만, 정책 설계가 비효율적이었다. 장려 정책을 주도한 전문가들의 영향으로 여성의 재생산권 강조와 출산 장려가 충돌하면서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했

다. 현금 지원 같은 미약한 혜택과 결혼, 출산에 대한 실질적 동기를 유발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고 했다.

현 교수는 "헝가리는 2010년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집권 후 헌법을 개정해 생명과 가족 중심의 전통적 가치를 강조했다. 낙태 제한, 젠더 연구 금지, 가족 보호 정책 등 다양한 개혁을 통해 출산율 증가와 전통적 가족 구조 회복을 목표로 삼았다. 경제적 지원 또한 획기적으로 강화해 아이 수에 따라 대출 탕감, 세금 면제 같은 혜택을 제공했다. 헝가리의 사례는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며 국가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생명 중심, 가정 중심의 정책을 통해 동성애, 낙태 등으로 인해 무너지는 사회적 질서를 받아들였다. 이는 기독교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세상에 만연한 반성경적 가치관을 분별하고 성경적 창조 원리에 따라 생명과 가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며 세속적 가치관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야 한다. 셋째, 행동으로 생명 중심, 가정 중심의 문화를 조성하고 교회와 사회 전반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리더들



한국복음주의의료인협회가 주최했고 예정함동 전남노회교육부가 주관한 2024 한복의협 정기 세미나가 광주동명교회에서 '반성경적 가치관과 저출산의 위기'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한국복음주의의료인협회



사회대책위원회 맹연환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최승연 기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현숙경 교수가 '반성경적 가치관과 저출산의 위기'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최승연 기자

을 양성하여 지속 가능한 출산율 회복을 노회 교육부장의 광고, 이상복 목사의 목표로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세미나는 이어 박병주 목사(전남

NCKK 신임 대표회장에 조성암 한국정교회 대교구장 선임

18일 제73회 NCKK 정기총회 개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총무 김중생 목사) 신임회장에 한국 정교회 조성암 암보르시오스 대교구장이 선임됐다.

제73회 NCKK 정기총회가 18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에서 '하나님의 창조세계, 함몰되어 기쁨의 춤을 추게 하소서(고전 12:25-27) 주제로 열린 가운데 산구 임원 아취임식 등 각종 화무가 치러졌다. 이날 총회는 총대 회원 268명



NCKK 신임 대표회장에 선임된 조성암 대교구장이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왼쪽은 김중생 총무. ©노형구 기자



NCKK 정기총회가 열리는 모습. ©노형구 기자

“차원성을 이해하면 사역 전체가 달라진다” >> 7면

한평우 목사 “천국을 소망한 사람: 단테” >> 22면

중 참석 122명, 위임 69명 등 총 191명이 참석해 성수됐다.

이날 제73회 NCKK 신임 대표회장에 추대된 한국정교회 조성암 암보르시오스 대교구장은 취임사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저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직전 대표회장 윤창섭 목사는 이임사에서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격려와 협력, 기도 때문이었다. NCKK가 지금 10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향후 100년을 향해가는 미래는 더욱 소망이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행복한 시간이었다. 한국교회의 면모를 같이 고민하고 의논하는 사명을 감당해서 감사하다. NCKK가 더욱더 큰 선교와 정의·생명·평화의 역사를 펼쳐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중생 총무는 보고에서 "경제 위기, 정치의 실종, 기후재앙, 전쟁의 소식 등의 상황에서 과오의 가라지

는 견어내고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향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자"며 "우리가 지나온 역사는 100년 이후 미래의 길을 암시한다.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이 교회 영광의 길이라는 역설은 진리임을 믿는다"고 했다.

이 밖에 '교회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활동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을 위한 지침 문서 채택의 건', 'NCKK 100주년 사회선언문 채택의 건' '제도개혁안 심의의 건' 등이 채택됐다.

노형구 기자

“미·중 양자택일의 신냉전 시대… 미국 택할 수밖에”

권성동 의원, 대구에서 열린 미래약속포럼 제4회 남북평화 통일기도회 및 세미나서 강연

사단법인 미래약속포럼이 주최하고 대한기독교노인회가 후원하는 '제4회 남북평화 통일기도회 및 한국 정치와 자유의 확립 세미나'가 최근 대구 인터볼트 엑스포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연병철 목사(미래약속포럼 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장상홍 장로(대한기독교노인회 이사장)가 환영사를 전했다. 그는 "미래약속포럼은 선진 대한민국을 단단하게 만들며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27년 동안 노력을 많이 했다"며 "강의를 통해 중요하고 복잡한 국제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홍석준 단장(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격려사를 전했다. 그는 "우파 자유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가 잘못된 것 때문에 지지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지만, 대구 경북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강영옥 교수(현 박정희아카데미 원장)가 축사를 전했다. 그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가 당선됨에 따라 세계의 각 나라가 기대와 우려 속에서 긴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도 같은 처지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오늘 권성동 의원께서 하시는 강연을 통해 국제 정세와 우리 국내 정세가 잘 알려지고 이 강연이 우리를 바른 길, 바른 생각으로 이끌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3면에 계속 최승연 기자

경기광주, 위대한 변화의 시작

지금이 아니면 가질 수 없다!

Super Solution City - 경기광주역 드림시티

DREAM CITY

경기광주역 드림시티

- 경기광주 최초 1,902세대 대단지 아파트
- 합리적인 가격 800만원대~
- 발코니 확장무상! 無이자 혜택!

031.714.1119

59㎡~100㎡ | 총 1,902세대

DRM-0101 | 광주역 내접마련 위원회 | (주)무궁화신학

● 본 홍보물의 CD, 일러스트,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현황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 국가권, 지자체 및 기타 관련 사업주체 중 변경 및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에는 무관합니다.